

難經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配屬方法에 對한 脈經과의 比較 研究

南 斗 烈 · 金 泰 熙

I . 緒 論

四診中 切診에 屬하는 脈診은 疾病을 診斷하는데 있어 매우 重要하다. 脈診 方法은 按脈部位에 따라 三部九候診法, 人迎氣口診法, 寸口診法과 按脈시 나타나는 脈象에 의한 方法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모두 指法에 의해 脈象을 판단한다. 指法은 按脈의 輕重推, 竟 등이 있는데 대개 舉, 按, 尋 또는 浮, 中, 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難經에서는 이와달리 처음에 脈을 잡아서 三菽의 무게로 皮毛와 相得하는 것은 장부이고, 六菽의 무게로 血脈과 相得하는 것은 心部이며, 九菽의 무게로하여 肌肉과 相得하는 것은 脾部이며, 十二菽의 무게로 하여 筋에 이르게하여 얻은 것은 肝部이고, 骨에 이르도록 按하여 舉指來發한 것은 腎部라¹⁾ 하여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의 위치를 設定하고 있다.

이 理論은 難經에서 처음 提示된 것으로

그 後代에도 單純한 引用^{2, 3, 4, 5, 6, 7)}만 있었을 뿐 이에 對한 糾明이나 脈法으로서의 發展이 없었다.

또한, 現今 韓醫界一角⁸⁾에서는 난경에서와 같이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診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按脈의 輕重에 對한 理論整立과 臨床上의 活用與否를 알아보기 위해 本研究를 試圖하게 되었다. 三, 六, 九, 十二菽이라는 것은 按脈의 輕重을 나타낸 것으로 浮, 中, 沈의 意味를 갖고 있으며, 心肺俱浮하고 肝腎俱沈하고 脾主中州其脈在中⁹⁾ 하였기 때문에 三, 六, 九, 十二菽의 輕重을 浮, 中, 沈의 概念으로 바꾸어서 調査했다.

按脈은 現存하는 最初의 脈學專門書로 漢以前의 脈學을 集大成하였는데 內徑, 難經 및 張仲景, 華他等の 有關論述을 選取하여 分門分類해서 脈理를 說明한 冊이며¹⁰⁾, 難經과 時代的으로 가장 가까운 專門脈學書이므로, 우선 脈經에서 五臟의 脈을 平脈과 病脈으로 나누어 按脈의 輕重에 따라 조사 比較한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註 1.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 臺孚書局, 1977, p 8)

2. 張機, 傷寒論(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卷3 p73)

3.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82, P 5

4. 崔嘉彥, 脈訣(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7)

5. 滑壽, 診家要(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卷3 P 180)

6.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P 96, 97

7. 許俊,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雜病篇 P 111

8. 釜山石谷學會(民族醫學 第13.14號)

9. 扁鵲, 難經(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學書局, 1977 P 6)

1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成輔社, 1985. P 60

II. 本 論

1.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

五難曰 脈有輕重 何謂也 然初持脈如三菽之重與皮毛相得者 肺部也 如六菽之重 與血脈相得者 心部也 如九菽之重與肌肉 相得者 脾部也 如十二菽之重 如筋平者 肝部也 按之至骨 舉持來發者 腎部也 故曰輕重也. 11)

여기서, 菽이란 豆의 別名이며 12, 13) 三, 六, 九, 十二의 數字는 實際的인 豆의 重量을 말함이 아니고, 按脈時의 經按과 重按의 程度를 表示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며 14), 腎에 대한 數字의 言及은 없으나 比率로 보아 十五菽之重으로 類推 할 수 있다. 15)

肺는 五臟 中에서 最上에 在하며 主皮毛하고, 心은 肺下에 在하며 主血脈하고, 脾는 心下에 在하며 主肌肉하고, 肝은 脾下에 在하며 主筋 하고, 腎은 肝下에 在하며 主骨하므로 16) 五臟의 上下次序 와 五臟所主에 의해 按脈의 輕重을 肺, 心, 脾, 肝, 腎의 순서로 菽의 重量으로 定하였다.

그리고, 呼吸時에 呼氣는 心과 肺에서 出하고 吸氣는 腎과 肝에서 入하며 呼吸之間에 脾가 穀味를 받기 때문에 其脈在中이라

하였는데 呼出爲陽이며 吸入爲陰이므로 心肺爲陽이며 腎肝爲陰이다. 脈의 陰陽에서 浮는 陽이고 沈은 陰인 故로 心肺는 俱浮하고 肝腎은 俱沈하고 脾는 不浮不沈한다. 17) 따라서, 浮에서는 心肺, 中에서는 脾沈에서는 肝腎을 候한다. 그러므로, 心肺의 脈은 浮脈이 爲主로 나타나야하고 肝腎의 脈은 沈脈이 爲主로 나타나야한다.

2. 脈經에서의 五臟脈

1) 肺

(1) 平 脈

肺脈은 四時에 應하여 輕虛以浮하며 來急去散한 浮脈이 나타나며 이 浮脈에는 胃氣가 厭厭攝攝 如落榆莢 18) 如循榆葉 19)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四時에 相應하는 平脈이고, 浮大 및 浮而短奮 20)도 平脈에 屬한다.

(2) 病脈

四時에 不應하여 毛而中央堅 兩旁虛한 것은 太過로 病在外한 것이고 毛而微한 것은

註 11. 扁鵲, 難經 (圖主難經脈結, 臺南: 大學書局, 1977 P8)

12. 前掲書, P 8

13.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3 P46

14. 前掲書, P 46

15. 滑壽, 難經本義, 臺北: 泰華堂出版社, 1979 P8

16. 前掲書, P 8

17. 扁鵲, 難經 (圖註難經脈結, 臺南: 大學書局, 1977 PP 5, 6)

18.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82, P40

19. 前掲書, P 194

20. 前掲書, P 7

不及으로 病在外한 것이다.²¹⁾ 胃氣의 多少에 의하여 病脈과 死脈을 알 수 있는바, 毛多胃少한 不上不下 如循鷄羽의 脈象이 나타나면 肺病이요. 毛無胃한 如物之浮, 如風吹毛²²⁾ 如連珠²³⁾의 脈象이 나타나면 肺死이다. 毛而有絃은 春病이고 絃甚은 今病이다²²⁾. 肺脈이 大而虛 如而毛羽中人膚色赤白不澤毛折한 것은 肺의 眞藏脈이다.

肺脈은 浮奮而短이 平脈이나 洪大而散하면 心之乘肺한 것으로 賊邪, 沈奮而滑하면 腎之乘肺한 것으로 實邪大而緩 하면 脾之乘肺한 것으로 虛邪, 弦細而長하면 肝之乘肺한 것으로 微邪라²²⁾ 하였으니 이는 五邪에 대한 脈이다.

浮之虛, 按之弱如蔥葉 大無根의 脈象은 肺의 死藏脈이다.²⁴⁾

肺脈이 沈搏하면 肺疝이고²⁵⁾ 肺脈이 搏堅而長하면 吐血, 濡而散하면 漏汗의 病이 있다는²⁶⁾ 것이다.

또한 肺病에 基色白身體但寒無熱, 時時咳의 證에 微遲한 脈이 나타나면 可治이다²⁷⁾

肺病에 身體當有熱 咳嗽短氣, 唾出膿血한 證에는 脈이 短澁하여야 하나 반대로 脈이 浮大하고 色當白而反赤한 것은 火之剋金으로 大逆이라²⁸⁾ 하였다.

平脈에서의 脈象은 浮, 毛, 浮大, 浮而短奮 등이 나타났는데, 毛脈은 輕虛以浮한 脈象을 말함이니²⁹⁾, 이는 모두 浮脈種類에屬하고, 病脈에서는 毛, 弦, 弦細, 大而虛 大而緩 洪大, 沈奮, 浮大, 沈搏, 微遲, 濡

而散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浮沈 어느곳에서든지 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平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浮(輕虛而浮來急去散) ○ 浮大 ○ 浮而短澁 ○ 胃微毛
病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毛而中央堅 兩旁虛 ○ 浮遲虛按之弱 ○ 搏堅而長 ○ 大而緩 ○ 短澁 ○ 毛多胃小 ○ 大而虛 ○ 弦堅 ○ 沈澁而滑 ○ 毛無胃 ○ 沈搏 ○ 毛而有弦 ○ 濡而散 ○ 浮大 ○ 弦細而長 ○ 毛而微 ○ 微遲 ○ 洪大而散

2) 心

(1) 平脈

心脈은 四時에 應하여 來盛去衰한 鉤脈이 나타나며³⁰⁾ 鉤脈에는 胃氣가 있어야 하므로 胃微鉤한 累累如連珠 如循琅竿³¹⁾ 如反尹堯大³²⁾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四時에 相應하는 平脈이고, 洪³³⁾, 洪大而長³⁴⁾, 浮而大散³⁵⁾도 平脈에屬한다.

註 21. 前掲書, P 40 22. 前掲書, P 40 23. 前掲書, P 194 24. 前掲書, P 41
 25. 前掲書, P 81 26. 前掲書, P 97 27. 前掲書, P 98 28. 前掲書, P 99
 29. 扁鵲, 難經 圖註難經脈結, 臺南: 大孚書局, 1977 P 22
 30.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82, P 34
 31. 前掲書, P 35 32. 前掲書, P 194 33. 前掲書, P 33 34. 前掲書, P 34
 35. 前掲書, P 7

(2) 病脈

四時에 不應하여 來盛亦盛한 것은 太過로 病在外한 것이고 來不盛去反盛한 것은 不及으로 病在中한 것이다³⁶⁾ 胃氣의 多少에 의心病이요. 鉤無胃한 前曲後居 如操帶鉤의 脈象이 나타나면 心死이다. 有胃而石은 冬病이요. 石甚은 今病이다.

心脈이 堅而搏如循薏苡子 累累然其色赤黑 不澤毛折한 것은 心의 眞藏脈이다. 浮之脈實如豆麻擊手, 按之益躁疾한 脈象은 心의 死藏脈이다.

心脈은 洪大而散이 平脈이나 脈이 沈濡而하여 病脈과 死脈을 알 수 있는바 鉤多胃少한 喘喘連屬, 其中微曲의 脈象이 나타나면 滑하면 腎之乘心한 것으로 賊邪, 大而緩하면 脾之乘肺한 것으로 實邪, 弦細而長하면 肝之乘心한 것으로 虛邪, 浮奮而短하면 肺之乘心한 것으로 微邪라³⁷⁾ 하였으니, 이는 五邪에 대한 脈이다.

心病에 其色赤, 心痛短氣 手掌煩熱 或啼笑罵리 悲思愁慮 面赤 身熱에 脈이 實大而數이면 可治라³⁸⁾ 하였고 心病에 煩悶 少氣 大熱 熱上湯心 嘔吐 狂語, 汗出如珠 身體厥冷의 證에는 脈이 당연히 浮해야하나 반대로 沈濡而滑하고 其色當赤而反黑者는 水之 刻火로 大逆이라³⁹⁾ 하였다.

平脈에서의 脈象은 鉤, 洪, 洪大而長, 浮而大散 등이 나타나는데 洪脈은 似浮而大한 脈象이며⁴⁰⁾ 鉤脈은 來盛去衰한 脈象이므로 이는 浮脈種類에 屬하고, 病脈에서의 脈象은 鉤, 沈濡浮奮, 實大弦細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浮, 沈 어느곳에서든지 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平脈	○ 鉤(來盛去衰) ○ 洪 ○ 浮而大散	○ 胃微鉤 ○ 洪大而長
病脈	○ 來盛去亦盛 ○ 來不盛去反盛 ○ 浮之脈實 按之益躁疾 ○ 沈濡而滑 ○ 浮澁而短 ○ 實大而數 ○ 有胃而石	○ 鉤多胃少 ○ 鉤無胃 ○ 浮 ○ 大而緩 ○ 堅而搏 ○ 弦細而長 ○ 石甚

3) 肝

(1) 平脈

肝脈은 四時에 應하여 濡弱輕虛而滑 端直以長, 如弓弦한 弦脈이 나타나고 弦脈에는 胃氣가 있어야 하므로 胃微弦한 濡弱招招 如揭竿末梢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⁴¹⁾ 四時에 相應하는 平脈이며, 弦細而長⁴²⁾, 牢而長⁴³⁾도 平脈에 屬한다.

(2) 病脈

四時에 不應하여 實而強한 것은 太過로 病在外한 것이고, 不實而微한 것은 不及으로 病在中한 것이다. 胃氣의 多少에 의하여 病脈과 死脈을 알 수 있는바 弦多胃少한 盈實而滑 如循長竿의 脈象이 나타나면 肝病이요, 弦無胃한 急勁如新張弓弦의 脈象이 나타나면 肝死이며 如鷄踐地한 脈象이 나타나

註 36. 前掲書, P 34 37. 前掲書, P 35 38. 前掲書, P 90 39. 前掲書, P 92
40.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88, p237. 42. 前掲書, P 32
41.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82, P 32 43. 前掲書, P 7

면 死한다 하였다. 有胃而毛는 秋病이요, 毛가 甚하게 나타나면 今病이다. 肝脈이 中外急如循刀刃 責責然 如按琴瑟弦 色青白不澤 毛折한 것은 肝의 眞藏脈이며⁴⁴⁾ 浮之脈弱하고 按之如索 不來或 曲如蛇行한 脈象은 肝의 死藏脈이다.⁴⁵⁾

肝脈은 弦細而長이 平脈이나 脈이 浮奮而短하면 肺之乘肝한 것으로 賊邪, 洪大而散하면 心之乘肝한 것으로 實邪, 沈濡而滑하면 腎之乘肝한 것으로 虛邪, 大而緩하면 脾之乘肝한 것으로 微邪라⁴⁶⁾ 하였으니, 이는 五邪에 대한 脈이다.

設病者 苦閉目 不欲見人者의 肝脈은 弦急而長하여야하나 반대로 浮短而奮의 肺脈이 나타나면 死한다⁴⁷⁾ 하였고 肝病에 色青 手足拘急 脇下苦滿或時眩冒한 證에는 脈이 弦長하면 可治라⁴⁸⁾ 했다. 또한, 肝病에 胸滿脇脹 善에 怒 叫呼身體有熱而復惡寒 四肢不舉 面目白 身體滑한 證에는 脈이 當然히 弦長而急해야하나 脈이 短奮하고 其色當青而反白者는 金之刻木으로 大逆이라⁴⁹⁾ 하였다.

平脈에서의 脈象은 弦, 弦細而長, 牢而長 등이 나타나는데 弦脈은 浮, 沈에 따른 位置의 發顯部位를 推測하기 어려우나 牢脈은 沈實有力하며 形大弦長한 脈象⁵⁰⁾으로 浮中二候에서는 得할 수 없고 沈位에만 나타나는 脈으로⁵¹⁾ 沈脈의 種類에 屬하고 病脈에서의 脈象은 弦, 毛, 浮奮, 浮短, 洪大, 沈濡, 大而緩 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浮, 沈 어

느곳에서든지 脈이 나타날을 알 수 있다.

平 脈	○ 弦(濡弱輕虛而滑, 端直以長, 如 弓弦) ○ 胃微弦 ○ 弦細而長 ○ 牢而長
病 脈	○ 不實而微 ○ 弦多胃少 ○ 有胃而毛 ○ 弦急而長 ○ 浮奮而短 ○ 弦長而急 ○ 沈濡而滑 ○ 洪大而散 ○ 浮短而奮 ○ 大而緩 ○ 浮之脈弱 按之如索不來 ○ 實而強 ○ 弦無胃 ○ 弦長 ○ 中外急 ○ 毛甚 ○ 短奮

4) 腎

(1) 平脈

腎脈은 四時에 應하여 沈而搏한 營脈이 나타나는데⁵²⁾ 이 營脈에는 胃氣가 있어야하므로 胃微石한 喘喘累累如鉤 按之而堅의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四時에 相應하는 平脈⁵³⁾이며, 沈⁵⁴⁾ 沈滑堅如石⁵⁵⁾ 按之堯舉之來實⁵⁶⁾ 沈濡而滑⁵⁷⁾도 平脈에 屬한다.

註 44. 前掲書, P 32 45. 前掲書, P 33 46. 前掲書, P 32, 33 47. 前掲書, P 78
48. 前掲書, P 87 49. 前掲書, P 88
50.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 成輔社, 1988, P 248
51. 前掲書, P 249
52. 王叔和, 脈經, 香港 : 太平書局, 1982, P 42
53. 前掲書, P 43 54. 前掲書, P 41 55. 前掲書, P 7 56. 前掲書, P 7
57. 前掲書, P 43

(2) 病脈

四時에 不應하여 來如彈石한 것은 太過로 病在外한 것이고 去如數한 것은 不及으로 病在中한 것이다.⁵⁸⁾

胃氣의 多少에 의해서 病脈과 死脈을 알 수 있는바 石多胃少한 如引葛 按之益堅의 脈象이 나타나면 腎死이다. 石而有鉤는 夏病이요, 鉤甚는 今病이다⁵⁹⁾ 腎脈이 搏而絶如以持彈石, 僻僻然 基色黃黑不澤毛折한 것은 腎의 眞藏脈이다⁶⁰⁾. 浮之堅, 按之亂如轉丸益下入尺中の 脈象은 腎의 死藏脈이다⁶¹⁾

腎脈은 沈濡而滑이 平脈이나 脈이 大而緩하면 脾之乘腎한 것으로 賊邪, 弦細而長하면 肝之乘腎한 것으로 實邪, 浮奮而短하면 肺之乘腎한 것으로 虛邪. 洪大而散하면 心之乘腎한 것으로 微邪라⁶²⁾ 하였으니, 이는 五邪에 대한 脈이다.

腎病에 黃色黑 其氣虛弱 吸吸少氣 兩耳苦聾, 腰痛, 時時實精 飲食減少 膝以下清한 證에는 脈이 沈滑而遲하면 可治라⁶³⁾ 했고, 腎病에 手足逆冷 面赤, 目黃 小便不禁 骨節煩疼 其衝於心한 證에는 脈이 沈細而滑해야 하나 반대로 浮大하고 色當黑而反黃者는 土之剋水로 大逆이라⁶⁴⁾ 하였다.

腎肝并沈이면 石水요, 并浮이면 風水요, 并虛면 死하며, 并小弦欲驚이라 하였고, 腎脈이 大急沈하거나 肝脈이 大急沈하면 모두 疴이라 하였다.⁶⁵⁾

平脈에서의 脈象은 營, 石, 沈, 沈滑, 沈濡而滑 등이 나타나는데, 石脈은 沈濡而滑한

脈象을 말함이니⁶⁶⁾ 이는 모두 沈脈種類에 屬한다.

病脈에서의 脈象은 石, 沈, 沈滑, 沈細, 浮, 浮大, 浮奮, 弦細, 洪大, 虛, 沈濡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浮, 沈 어느곳에서든지 脈이 나타나음을 알 수 있다.

平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營(沈而搏) ○ 沈濡而滑 ○ 沈滑堅如石 ○ 沈 ○ 按之軟舉之來實 ○ 胃微石
病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浮之堅按之亂 ○ 去如數 ○ 來如彈石 ○ 石無胃 ○ 石而有鉤 ○ 搏而絶 ○ 弦細而長 ○ 大而緩 ○ 洪大而散 ○ 大急沈 ○ 沈濡而滑 ○ 浮大 ○ 沈 ○ 沈滑而遲 ○ 小弦 ○ 虛 ○ 浮奮而短 ○ 鉤甚 ○ 浮 ○ 沈細而滑 ○ 石多胃少

5) 脾

(1) 平脈

脾脈은 四時에 應하여 和柔相離 如鷄足踐地한 緩脈이 나타나며⁶⁷⁾ 胃微濡弱한 脈象이 나타나는 것이 四時에 相應하는 平脈⁶⁸⁾ 이며, 緩而遲⁶⁹⁾ 大而緩⁷⁰⁾ 도 平脈에 屬한다.

註 58. 前掲書, P 42 59. 前掲書, P 43 60. 前掲書, P 43 61. 前掲書, P 44
 62. 前掲書, P 43 63. 前掲書, P 101 64. 前掲書, P 102 65. 前掲書, P 80
 66. 扁鵲, 難經 (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學書局, 1977, P 22
 67.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82, P 37
 68. 前掲書, P 38 69. 前掲書, P 36 70. 前掲書, P 38

(2) 病脈

四時에 不應하여 如水之流한 것은 太過로 病在外한 것이고 如鳥之喙한 것은 不及으로 病在中한 것이다.

胃氣의 多少에 의해서 病脈과 死脈을 알 수 있는바 弱多胃少한 實而盈數 如鷄舉足の 脈象이 나타나면 脾病이고, 代無胃한 堅兌 如鳥之喙 如鳥之距, 如屋之孺 如水溜한 脈象이 나타나면 脾死이다.⁷¹⁾

脾脈이 弱而乍疎乍散 色靑黃不澤毛折한 것은 脾의 眞藏脈이고 浮之脈大緩 按之中如覆杯의 脈象은 脾의 死藏脈이다.⁷²⁾

脾脈은 大阿阿而緩 平脈이나 脈이 弦細而長하면 肝之乘脾한 것으로 賊邪, 浮畜而短하면 肺之乘脾한 것으로 實邪, 洪大而散하면 心之乘脾한 것으로 虛邪, 沈濡而滑하면 腎之乘脾한 것으로 微邪라⁷³⁾ 하였으니, 이는 五邪에 대한 脈이다.

脾病에 其色黃, 飲食不消 腹苦脹滿 體重節痛, 大便不利한 證에는 脈이 微緩而長하면 可治라⁷⁴⁾ 했고 脾病에 其色黃, 體靑 失手 直視 脣反張爪甲靑, 飲食吐逆 體重節痛, 四肢不舉한 證에는 脈이 당연히 浮大而緩해야하나 반대로 弦急하고 其色當黃 今反靑者는 本之剋土로 大逆⁷⁵⁾이라 하였다.

平脈에서의 脈象은 緩, 緩而遲 大而緩 등이 나타나는데 緩脈은 脈의 來去가 從容하며 不浮不沈하고 不遲不數하며 數一息에 四去하되 반드시 中部에 있는 脈이며, 有胃氣 無病하고 正氣가 가득찬 건강한 脈象이다⁷⁶⁾.

病脈에서의 脈象은 弱, 代, 大緩, 弦細, 浮畜

洪大, 沈濡微緩, 浮大, 弦急 등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浮, 中, 沈 어느곳에서든지 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平 脈	○ 緩(和柔相離 如鷄足踐地) ○ 胃微濡弱 ○ 緩而遲 ○ 大而緩
病 脈	○ 如水之流 ○ 如鳥之喙 ○ 弦細而長 ○ 沈濡而滑 ○ 浮畜而短 ○ 洪大而散 ○ 微緩而長 ○ 浮大而緩 ○ 弱而乍疎乍散 ○ 弱多胃少 ○ 浮之脈大緩 按之中如 覆杯 ○ 代無胃 ○ 弦急

III. 結 論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에 따른 五臟脈을 三, 六菝은 浮, 九菝은 中, 十二菝, 至骨까지 按하는 것은 沈으로 하여 脈經에서 살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五臟의 平脈에서는 心肺의 脈은 浮脈을 爲主로 나타났고, 肝腎의 脈은 沈脈을 爲主로 나타났으며, 脾脈은 胃氣의 脈인 緩脈을 爲主로 나타냈다.
- 2) 五臟의 病脈에서는 心肺의 脈이 沈脈을 나타내거나, 肝腎의 脈이 浮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註 71. 前掲書, P 37 72. 前掲書, P 38 73. 前掲書, P 38 74. 前掲書, P 94
75. 前掲書, P 95
76.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 成輔社, 1988 PP 234, 235

- 3)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에 따른 方法은 平脈인 경우에는 脈經에서의 五臟平脈과 一致하나, 病脈인 경우에는 一致하지 않았다.
- 4) 따라서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에 따른 方法은 實際臨床에서 쓰이는 脈法이 아니라 臟腑의 位置概念을 脈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이다.
- 5) 앞으로 難經에서의 按脈의 輕重에 따른 方法은 脈經이하 諸醫家說과 比較하여 더 자세한 糾明이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泰熙外, 漢方診斷學, 서울 : 成輔社 1988.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大編), 서울 : 成輔社, 1985.
3. 許俊,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1.
4. 唐湘清, 難經今澤, 臺北 : 國立編譯館, 1983
5. 王叔和, 脈經, 香港 : 太平書局, 1982.
6.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 翰成社, 1983.
7. 張機, 傷寒論 (醫部全錄,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3)
8. 崔嘉彥, 脈訣 (東垣十書, 서울 : 大星文化社, 1983)
9. 扁鵲, 難經 (王叔和, 圖註難經脈訣, 臺南 : 大學書局 : 1977)
10. 滑壽, 診家樞要 (醫部全錄,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3)
11. 滑壽, 難經本義, 臺北 : 泰華當出版社, 1979.

A B S T R A C T

A study in Mack - Gyung (脈經) on taking pulse of relative weight to five
Viscera attachment system in Nan-Gyung(難經)

O.M.D. Nam, Doo Yeul Kim. Tae Hee
Sang Ji University

In Nan - Gyung, showed that could know the lung condition taking pulse with the weight of three beans, the heart condition taking pulse with the weight of six beans, the spleen condition taking pulse with the weight of nine beans, the liver condition taking pulse with the weight of twelve beans, the kidney condition pressing to bone (骨). This theory is first suggested in Nan-Gyung (難經).

In those case, the weight of three, six, nine, twelve beans and pressing to bone don't mean not the real weight but the relative weight (輕重) of taking pulse (按脈).

In other words, those represent Boo Jung Chin (浮中沈), which are the conception of the upper, the middle, the lower part (上中下). So, we could take pulse of the heart and the lung condition in Boo(浮), the spleen condition in Jung(中), and the liver and the kidney condition in Chim (沈).

The heart and the lung pulse showed in the Boo(float level) must be seen with Boo-Mack (부맥 : float pulse), the liver and the kidney pulse showed in Chim (sinklevel) must be seen also with Chin-Mack(沈脈: sink pulse).

The result of the method of taking pulse of viscera with relative weight focused on the aspect of normal pulse(平脈) and disease pulse(病脈) of five viscera in Mack-Gyung (published later than Nan-Gyung and special works which made a comprehensive survey the result is as follow.

1. In normal pulse of five viscera, the heart and the lung pulse were shown with Boo-Mack(浮脈:float pulse) as the central figure, the liver's and the kidney's pulse were shown centering around Chim-Mack (沈脈 : sink pulse) and the spleen's pulse was shown with Wan-Mack (緩脈) which is vital force of stomach (胃氣) and seen in only middle part.
2. In disease pulse of five viscera, frequently, the heart and the lung pulse was shown as Chim-Mack(sink pulse), the liver and the kidney pulse was seen as Boo-Mack (float pulse).
3. In the case of normal pulse, the method of taking pulse with relative weight in Nan-Gyung agree with the normal pulse of five viscera in Mack-Gyung. But in the case of disease pulse, they didn't correspond with the other.
4. So the method of taking pulse with relative weight in Nan-Gyung is not the exam pulse which can be used in the clinical diagnosis but one of the feeling pulse way to bring in the conception of location of the viscera.
5. From now on, the method of taking pulse related to relative weight need to be looked into minutely compared with later physician's theory than Mack-Gyung.